

입학관리본부 본부장 인터뷰 / 박정일 교수

학내기관 탐방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09년 10월 27일(화) 오후 2시, 입학관리본부 본부장실에서 박정일 본부장(약학대학 약학과 교수)과 만나 입학관리본부의 역할과 방향, CTL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인터뷰

이희원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조교수

글

박수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입학관리본부의 역할

이희원(이하 'CTL'): 저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연구와 사업을 맡아 오늘 인터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입학관리본부의 구성과 역할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이하 '본부장'): 입학관리본부에는 2개의 부서, 즉, 입학관리과와 입학전형실이 있습니다. 입학관리과는 입학지원서 접수, 서류의 검토, 예산의 집행 등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입학전형실은 21명의 전임 입학사정관들이 입학과 관련한 평가 업무, 입시관련 연구, 정책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CTL: 서울대학교 학부 신입생 입학전형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본부장: 서울대의 학부 입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이며, 정원 외까지 고려하면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지역균형은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한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두 번째는 특기자 전형 선발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학교 수업 외에도 다양한 특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입니다. 세 번째는 정시 일반 전형인데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 세 종류는 정원내 전형입니다. 이 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몇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는 전형외입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전형,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특별전형도 있습니다.

CTL: 입학관리본부의 역할은 입시 전형을 위한 입학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후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입학사정관 신입생을 위한 연구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부장: 저도 이번 연구와 사업을 준비하면서 CTL에서 하는 일과 관심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웃음).

CTL: CTL은 2004학년도부터 입학 전 교육인 'Learn how to learn'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에 앞서 정시, 수시 입학생이 대학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학습전략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됩니다.

본부장: 학내 유관 기관들이 그러한 교육과 관련해 유기적으로 잘 연관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학 후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도 기관 간 유기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는 비교적 동질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입학 후 학생 관리 지원이 어떠한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장배경이나 교육환경, 특기능력이 매우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대학의 교육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획일적으로 교육합니다.

저희는 학내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정작 이런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와서는 획일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그들의 특수과 잠재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학 기관들 중에서는 저희 입학관리본부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장 먼저 보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입학 전·후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내 여러 부서와 기관, 단과대학들이 연계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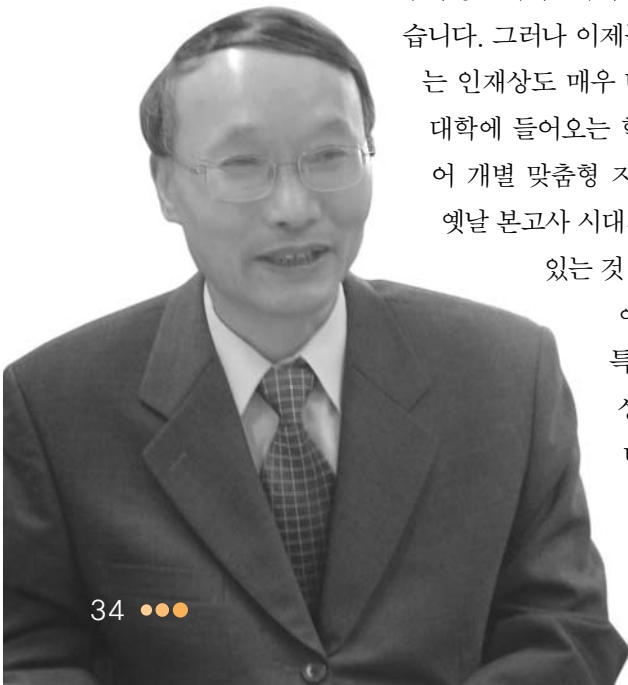
특히 CTL은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CTL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교육에 바란다

CTL: 서울대학 교육에서 가장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우리 대학 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특성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교육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고 주어진 것만 잘하면 되는 시대에는 성적만 열심히 높여 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었고, 다행히 서울대학교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급변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매우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아직도 옛날 본고사 시대의 교육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서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학생 등을 선발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크게 2가지 문제에 당면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 둘째,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입학 후 다른 학생들과 큰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수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입학 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고 자신있는 태도로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학 후 한 학기 정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이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입학관리본부의 비전과 방향

CTL: 향후 입학관리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두말 할 것 없이 입학관리본부의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구성원을 우수하게 하여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입학관리본부에서 특히 유념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학관리본부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수자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가능성이 큰 학생을 뽑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환경이나 생활환경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한 학생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다양화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 강의 시간에 배우는 것이 많겠지만 사실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비유하자면 용광로에 철광석만 넣어서는 철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석회석, 코우크스 등의 다른 부자재가 들어가야 용광로가 타서 온도가 올라가고 제대로 된 철이 생산됩니다. 똑같은 학생들만을 뽑아놓으면 콩나물처럼 위로만 자라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구성원이 다양한 특성을 지녀 스스로 우리 사회와 대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입시는 공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나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한 농어촌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북한이탈자특별전형과 같은 정원외 전형, 지역할당제 등은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전형입니다.

CTL과의 협력방안

CTL: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울대학의 교육에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학관리본부와 CTL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교수의 책무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가 있는데 그 중 제일 우선시해야 할 활동이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연구이고 그 다음이 사회봉사인데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CTL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입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생지도 및 교육 모델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이를 우리 대학 교수님에게 알리고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CTL에서 교수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TL: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CTL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님께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알리고, 그 특성에 맞추어 교육 전략을 보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CTL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CTL에서는 서울대 학생들의 특성을 유형화시키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차후에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전략을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학관리본부 본부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교육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눈이 전공에서 멀어지면서 좀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웃음). 서울대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학 전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고교지원 (out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학생 봉사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낙후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수님들 이하 대학원생, 학생, 입학관리본부, 학생처, 각 단과대학이 공동으로 현지 봉사활동도 하면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자연스럽게 서울대 입학설명도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봉사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TL: 저희 CTL이 사회봉사를 나가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담당하는 방안을 기초교육원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CTL도 협력할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교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훈련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겪는 문제들을 CTL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서울대에 들어오면 사실은 다른 학생들에게 더 큰 가르침을 줍니다. 즉, 우리 사회가 더불어 가는 사회이고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대학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적 배려를 한다고 학생을 선발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한데 CTL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CTL: 자주 만나 뵙고 고민도 나누고 연계할 점도 찾는 과정이 서울대학의 교육 개선 뿐 아니라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